

#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9주일 2016.8.7(다해) 제2010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월배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 오늘의 전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루카 12,40)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종처럼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다가,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1독서** 지혜 18,6-9      **제2독서** 히브 11,1-2,8-19      **복음** 루카 12,32-48.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 겹쳐진 눈 한 개

박비오 비오 신부 | 약목본당 주임

자비의 희년 로고 중에 예수님께서 아담을 업고 있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 모습 중에서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세 개의 눈'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의 눈을 합치면 네 개가 되어야 하지만, 로고에는 눈이 세 개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 한 개와 아담의 눈 한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고는 마치 '아담이 어떻게 인류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그 사람 밖에서 그에게 강요하는 명령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전히 다른 두 존재이지만 자유의지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었기에 사랑의 계명은 곧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상태가 하느님 나라이고, 이것이 새로운 인류가 청해야 할 청원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에서 하느님을 뵈었고, 장막 밖에서 백성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백성의 고충과 죄악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며, 천상의 빛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백성 앞에 선 모세는 그렇게 해석된 내용을 들려주었겠지요. 모세는 환멸을 느낄 수도 있는 그 일, 곧 자신과 백성의 죄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일, 곧 영원히 장막 안에 머물고 싶은 것을 매번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겹쳐진 한 개의 눈'을 지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한쪽 눈으로 자신과 세상의 죄를 바라보았고, 다른 한쪽 눈으로 천상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자신과 세상의 그림자를 보며 뉘우치고, 천상의 빛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면 이것이 주일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교류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깨어 있음'이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원과 역할을 통합시켜 나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눈과 우리의 눈 한 개가 겹쳐지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처럼 바라보도록 초대받았음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겹쳐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 **궤약**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연중 캠페인

## 하느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

김덕선 프란치스카 | 꿈나무어린이집 원장

“하느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이 되기 위해서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저희에게 큰 용기를 갖게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순종, 정직함, 다정한 말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그러면, ‘어린이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더없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요즘 어린이들은 정해지지 않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어린이들을 숲으로 데려가면 나뭇가지 하나가 정말 다양한 도구로 쓰인다는 데 놀라고, 떨어진 솔잎으로 ‘전설의 북음곡 수’를 만들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길을 안내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활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기성품인 플라스틱 장난

감을 주로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동·식물과 친해지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자연을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신학기에 7살 여자아이가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울기만 하고 등원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고 눈을 고쳐 주신 것처럼, “○○야 무엇을 도와줄까? 말없이 울기부터 하니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라 선생님은 안타까워!”라고 하니 친구는 “친한 친구가 없어 혼자 지낼까봐 무서워 오기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교실에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어, 이제는 어린이집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이들이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간혀 힘들어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필름**



##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 대리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이 말은 약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대전교구 오기선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톨릭신문에 글을 연재하여 실으셨다. 필자는 그때 아주 감동 있게 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충격이었다. 그때 필자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였으니까 아직은 젊었을 때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과연 나도 은퇴나 세상을 떠날 때 오 신부님처럼 이런 멋진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다.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사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더 컸다. 그래서 오 신부님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사제 생활이 힘들고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고독과 어려움을 견뎌왔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진다. 또다시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할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까지 든다.

방황과 고독과 싸우는 사이 어느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8월 24일이 필자의 은퇴미사를 거행하는 날이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현재의 심정도 그렇지만 솔직히 은퇴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은퇴미사를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42년간의 사제생활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 보다는 잘 못한 것이 몇 배나 더 많고 자랑할 것 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끄러운가를 말하라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부끄럽고 죄스럽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가질 뿐이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루카 7,43)이 채권자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바로 사도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골로 2,13-14)

그러나 필자의 마음 한 구석에 또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도 은퇴할 때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나도 오 신부님께서 하신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다. 사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자꾸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은 뻘한 결론으로 가는 것 같다.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은퇴를 눈앞에 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토록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당신의 사제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싶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토록 죄송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한번만 더 불러 주시면 더 잘 살기 위해, 더 멋진 사제가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불러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사제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다. 힘들고 고독한 삶이다. 그렇지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삶이다. 한번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

교황님 이야기

## 역사 속 위대한 교황님들 II

요한 23세(1958~1963)



7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제261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요한 23세 교황님은 현대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교황님입니다.

“착하신 교황 요한”이란 별칭에서도 드러나듯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은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최초로 로마에서 시노드를 열어 사목과 신앙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고, 교회법을 새롭게 편찬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쇄신과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를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여신 분이십니다. 소탈한 성품으로 공장과 양로원, 감옥을 찾아다니시며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추기경단의 규모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바오로 6세(1963~1978)

제262대 교황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성공적인 결실을 이끌어 내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동방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전례현장’,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을 제정 반포하셨으며, 영성체 전 공심재, 미사 때의 모국어 사용, 전례쇄신 등을 결정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사목방문을 한 최초의 교황이시며,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첫 교황이십니다. 처음으로 팔레스티나 성지를 방문하셨으며, 아시아 지역을 찾고 UN 본부에서의 연설도 ‘처음’으로 시도하셨습니다. 특히 추기경 숫자를 140여 명으로 늘려 교회의 보편성을 찾고자 하셨으며 우리나라의 순교자 24위를 추가로 시복하시고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서임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

45년 만에 탄생한 비 이탈리아계 교황으로 제264대 교황님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냉전의 시대’에 대립과 대결의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으로 공산국가인 모국 폴란드를 방문하셨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세기적 만남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행동하는 교황’, ‘평화의 사도’로 불린 교황님께서는 재위 25년 동안 102회에 걸쳐 131개국을 방문하는 등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실현하셨으며, 가장 많은 성인을 시성한 교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윤리를 다지는 교회 가르침을 다수 발표하셨고, 특히 대희년을 기점으로 지난날 교회가 저지른 과오를 사과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2014년 4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요한 23세 교황님과 함께 시성되었습니다. **필문**

## 피서지에서도 미사드런요! (경북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 |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성동본당 ☎ (054)776-1841

황성본당 ☎ (054)771-7817

### |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구룡포본당 ☎ (054)276-2439

### | 망양·봉평·후정 해수욕장

울진본당 ☎ (054)783-2130

북면본당 ☎ (054)783-1965

### | 대진·고래불·거무역·대신·장사·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영덕본당 ☎ (054)733-0511

신애공소 ☎ (054)732-3519

후포본당 ☎ (054)788-2157

영해본당 ☎ (054)733-6880

### | 울릉도, 독도

도동본당 ☎ (054)791-2047

천부본당 ☎ (054)791-6047

### | 직지사(김천)

대신본당 ☎ (054)437-1785

평화본당 ☎ (054)434-1785

### |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흥해본당 ☎ (054)262-2258

### |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덕수본당 ☎ (054)246-6311

죽도본당 ☎ (054)273-3441

## 생명은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깨어(?)있다 보니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8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11:00 신평성당	-	-

### 성소 | 피정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8.14(일) 14: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경당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여성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 성령봉사회 일일 피정

일시: 8.20(토) 14:00~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별관(평리동)

강사: 이성억(타대오) 신부

2박 3일 성령세미나: 9.9(금)~11(일)

문의: (054)954-0951 / (010)4461-4419

#### 젊은이 빈마음 2박 3일 피정

기간: 8.19(금)~21(일) / 선착순

장소: 흥천성빈센트기도의집 / 3만 5천원

대상: 만30세 이하 미혼 여성

주최: 성빈센트드뽐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 젊은이 수도생활 체험 피정

기간: 8.13(토)~15(일) 2박 3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피정비: 3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 천호성지 주말 영성 피정

기간: 8.13(토)~14(일)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 집

주제: 거경\_하느님 앞에 선 인간처럼

지도: 남종기 신부(천호성지 관장)

문의: (063)263-1004

####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8.14~16 / 8.18~20 / 8.28~30

9.19~22 / 9.24~27 / 9.30~10.3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들피정의집, (064)796-9181

### 교육 | 모집 | 기타

#### 사랑의 기쁨\_김영학 클라리넷 연주회

일시: 8.13(토) 19:30~21:00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연주자: 김영학 루카(클라리넷), 전현주

세실리아(첼발로), 김주현 요한(오르간)

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425-5185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8.26(금) 17:30~28(일)

4박 5일: 9.5(월) 14:00~9(금)

8박 9일: 8.15(월) 14:00~23(화)

에니어그램: 8.12(금) 15:00~14(일)

문의: (031)946-2337~8

#### 장례지도사 무시험국가자격 교육생 모집

야간반(30명): (토) 13:00~19:20

(일) 13:00~21:20

(월, 수) 18:30~22:20

개강: 9.3(토) / 대상: 20세 이상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 서부지중해 4개국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0(화)~30(금) 10박 11일

장소: 이태리,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경비: 내측 548만원, 발코니 598만원

1인실(싱글룸) 예약 가능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 제20회 캐나다, 필리핀 영어연수

출발: 2차 8.28(일)

3차 9.24(토)

지역: 밴쿠버, 바콜로드

내용: 영어연수, 문화체험, 봉사활동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 부산교구 혼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

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신청: family@catb.kr

이력서마감: 9.11(일)

문의: (051)629-8775

###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혈레(유스티노) 흥미희(안젤라)

###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권 홍 훈 (바오로)

주요질환: 아토피 | 알레르기 | 시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질환: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 치질수술경통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 병원

신경통 959-7175

###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외)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원장 이주석 요셉

###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행사 | 모임**

**성모기사회\_콜베의 밤에 초대합니다**

일시: 8.13(토) 18:30  
 장소: 월배성당  
 문의: (010)9100-4114

**고성성당 새성전 기금마련 뮤지컬 공연**

영혼의 안식과 주님께 순종할 기회로 초대  
 기간: 9.23(금)~25(일), 오페라하우스  
 제목: 서울할망 정난주  
 문의: 352-1412

**교육 | 모집**

**소공동체 체험수기 공모**

기간: 7.29(금)~9.30(금)  
 내용: 소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했던 내용  
 제출: 교구 사무국(samok@dgca.or.kr)  
 문의: 250-3056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성교육**

**집중 3일 연수**  
 기간: 8.23(화)~25(목) 10: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광호(베네딕토) / 마감: 8.19(금)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소람상담사목교육 2학기 모집**

신청마감: 8.23(화) / 선착순 100명  
 내용: 자기이해 과정(상담심리학, 가족관계학) / 신청비: 각 5만원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4차 ME주말: 8.12(금) 19:00~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성지안내봉사 교육(한국천주교회사)**  
 기간: 9.2~12.16(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5만원(교재 및 간식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가대 평생교육원 2016년 2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학 개설(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8.26(금)  
 개강: 8.29(월) / 신청: 660-5554~7

**18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모집**  
 기간: 9.1(목)~2(금)  
 대구은행 508-10-349316-9(장혜자)  
 입금선착순 30명 / 교육비: 3만원  
 문의: 대구파티마병원, 940-7515  
 940-7517(입금 후 전화)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오르간·키보드·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플루트, 통기타, 바이올린, 오카리나, 일본어회화, 성인생활영어회화, 뽕생·유화·수채화,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동화구연지도사과정  
 문의: 476-6211(지하철 교대역)

**제24기 대가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경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6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등대꽃**  
 건강방산 자연산전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미 카타리나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중원**(소시오)  
 ☎ 053)626-8881~5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윤영희 성명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영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